

광 —

경

DAC Artist

계 의

추 다 혜

시  
선



2022.  
9.29 — 10.12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만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아티스트  
Artist  
(2008-2022)

강현주(작·연출가)  
진해정(작·연출가)

진주(극작가)  
〈클래스〉

추다혜(국악창작자)  
〈광·경계의 시선〉

이승희(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김수정(작·연출가)  
〈김수정입니다〉〈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경성(작·연출가)  
〈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Went 닥트〉〈죽음과 소녀〉〈오셀로〉

양태석(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Solo〉〈솔로 드럼 퍼포먼스〉, 앨범 〈Human Fractal〉

김은성(극작가)  
〈빨〉〈목란언니〉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나는 나의 아내다〉〈배수의 고도〉〈사보이 사우나〉〈목란언니〉  
〈소설가 구보씨의 1일〉〈잠 못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마이 아이즈 Went 다크〉〈폭스파인더〉

성기웅(작·연출가)  
〈가모메〉〈소설가 구보씨의 1일〉〈깃븐우리절문날〉

이자람(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사천가〉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청춘, 18대 1〉



강현주(작/연출가)  
Kang, Hyun Ju  
Playwright · Director



진해정(작/연출가)  
Jin, Hye Jung  
Playwright · Director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 · 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 · 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 ·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 · Director



이자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추다혜  
구성·연출·음악감독

DAC Artist  
추다혜차지스 보컬



퍼포먼스곡 〈짓—사자의 언어〉

뮤지컬 〈금악 禁樂〉

콘서트 〈2021 여우락 페스티벌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Bonus Track: 추다혜차지스〉  
〈추다혜×김윤희 '오매불망'〉〈생기탕천 Vol.3 추다혜〉  
〈미국 공영 라디오 NPR 'Tiny Desk Concert'〉  
〈쌍쌍×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조인트 콘서트〉 외

앨범 2022 왓차 [조인마이테이블 OST]  
2020 정규 추다혜차지스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  
2020 싱글 추다혜 [몽금포] [싸름] [자진아리]  
2017 EP 쌍쌍 [SsingSsing]

수상 2021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알앤비&소울 노래 부문  
추다혜차지스 '리츄얼댄스'  
2005 제12회 전국민요경연대회 일반부 민요부문 최우수상  
2004 제11회 경기국악제 전국경연대회 일반부 민요부문 대상

작가 노트

요가에서 만트라(mantra, 종교적 주문), 만트라에서 찬트(chants, 종교적 낭송곡)까지...  
삶에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실감했을 즈음  
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내 삶을 잠식할 수 없도록  
명상과 영성에 기대어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때 나는 누군가 살면서 한 번이나 들어볼까 싶은 음악들을  
찾아 듣고, 따라 부르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굿판'을 통해 새로운 작업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날 굿판을 휘어잡던 만신의 무가(무당의 노래)를 보며,  
친근함과 경외심이 오가던 영성의 순간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생생한  
기억이다.

굿판 위에서 날고 뛰는 무당의 '공수'와 술한 '무가'들이  
결국엔 인간세상을 향해 누군가 보내는 위로와 응원이 아닐까.  
그 길로 무작정 무가를 배우기 위해 무당을 찾아 나섰다.  
만신은 불쑥 신당을 찾아와 무가를 배우고 싶다 조르는  
내가 기특했는지, 혹은 안쓰러웠는지, 몇 번의 거절 끝에  
한 소절씩 무가를 전해주었다.  
그렇게 신도 받지 않은 내가 2여년 간 무가를 배웠다.

이 시간동안 나는 무가보다 무당이라는 '사람'과 그의 '삶'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울고 웃는 시간. 그 과정을 통해 세상에는 술한 관계와  
크고 작은 사건들과 끊임없는 이야기가 생겨난다.  
현대 무당의 경우에는 그런 일상적인 관계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 경계의 선 무당들이 나의 마음을 톡 톡 건드렸다.

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속세에 전할 무당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나도 경계에 선 무당들의 삶을 세상에 전할 이로 선택 받은 것은 아닐까.

매일 눈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다른 이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그들.  
나의 소리와 마음으로 만났던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본다.

민요와 무속음악,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창작자 추다혜의 신작 <광—경계의 시선>은 굿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한판 벌인 공연이다. 주변에서 느끼는 소소한 작은 이야기도 그녀에게는 예술의 소재가 되어 작품이 되는데, 음악가의 특별한 감수성이 예술 생태계에 어떻게 뿌리내리는지 그 현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작업은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미신(迷信)이라 여기는 굿도 그녀가 하면 트렌드가 된다. 장자의 꿈에 등장한 나비처럼, 추다혜가 무당인지, 이 공연이 굿판인지, 예술적인 끼가 바로 신기(神氣)인지, 그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설정도 흥미롭고 무당의 인생을 실감나게 풀어낸 그녀의 구성력과 연출적인 기량도 가히 역대급이다. 굿판은 바로 제의이고, 제의는 곧 축제가 되는 순간을 무대에서 고스란히 보여준다. 무대 위의 추다혜는 아슬아슬한 경계에 선 무당이고, 실연자며, 창작자다. ‘추다혜차지스’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을 때는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주 많은 소리꾼이었다면, 이번 신작을 통해서도 구성·연출·음악 감독의 영역을 넘나들며 노래와 연기를 넘나드는 작가주의 예술가이면서 독보적인 존재로 훌쩍 성장한 추다혜를 만날 수 있다.

#### 국악의 진화를 이끄는 주역, 추다혜

미국 공영 라디오 NPR 유튜브 영상으로 일약 월드뮤직 스타로 떠오른 ‘쌍쌍’ 밴드에서 매력적인 코러스를 보여주었던 홍일점이 바로 서도민요를 전공한 추다혜다. ‘쌍쌍’은 해체되고 그들의 음악은 전설로 남았지만, 추다혜는 ‘추다혜차지스’란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1집 음반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로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최우수 알앤비&소울 부문)을 수상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악의 진화를 이끌고 있다.

추다혜는 서울예대에서 서도민요를 전공했고, 중앙대 국악대학에서 연기전공을 했다. ‘쌍쌍’ 활동을 하기 전에는 영어 뮤지컬도 하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도 다녀왔다. 그녀는 소소한 행복과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것을 삶의 우선 순위로 두고 있기에 조선의 한량처럼 늘 풍류를 쫓았다. 소리꾼 이희문과 오더메이드 <쾌> 등에 참여하면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쌍쌍’ 밴드로 이어졌고, 이희문은 그녀의 내면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무대로 이끌어 준 사람이기도 하다.

추다혜는 ‘쌍쌍’ 공연에서 강한 인상을 주었던 소리꾼이지만, 내가 추다혜를 주목한 것은 2017년 11월 설치미술가 최정화의 집이자 작업실인 ‘가슴소’에서 있었던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의 콘서트 <HOME>에서였다.

오래된 양옥집의 주차장-지하실-작업실-작은방-가든 등을 이동하며 공연되었고, 소수의 관객은 연주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함께 이동하며 음악을 감상하는 특별한 콘서트였다. 그날의 주인공은 분명히 가야금 연주자였지만, 내 눈에는 무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빨간색 립스틱의 추다혜가 들어왔다. 그리고 2년 뒤인 2019년 10월 20일 ‘북촌우리음악축제’가 열렸던 원서공원의 무대에 굿음악으로 팀을 이뤄 ‘추다혜&차지스’로 무대에 선 그녀를 다시 만났다.

‘쌍쌍’ 활동을 하면서 홍대 인디씬을 알게 된 추다혜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밴드를 만들어 활동을 염두에 두고 굿과 무속음악 대한 리서치를 꾸준히 했고, 이런 배경이 ‘추다혜차지스’를 출발하게 했다. ‘코리안 펑키 샤머니즘 뮤직’의 추다혜차지스는 소리꾼 추다혜를 중심으로 이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의 4인조 밴드다.

2019년 ‘생기스튜디오’라는 홍대 라이브클럽에서 ‘생기탱천’ 시리즈 공연에 서게 된 것이 추다혜차지스가 출범하게 된 계기다. 대중음악계, 국악계, 인디 음악계를 넘나들던 그녀는 대담하게도 무가(巫歌)와 블랙 뮤직(흑인음악)을 혼합해 ‘코리안 펑키 샤머니즘 뮤직’을 만들었다. 추다혜의 노래는 새로운 스타일의 흑인음악 보컬 같고, 차지스의 연주는 처음부터 무가를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그들을 보며 느낀 전반적인 인상은 펑키funky함이다. 무속음악을 신나고 재미 있는, 댄서블한 음악으로 풀어냈고, 블랙 뮤직과 더불어 레게reggae, 사이키델릭psychedelic, 덤dub 등 다양한 장르를 녹여냈다. 추다혜차지스의 음반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는 선우정아 등 켤썸한 후보들을 제치고 2021년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음악의 탄생’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최우수 알앤비&소울 노래 부문을 수상했다.

#### 추다혜 신작 <광—경계의 시선>

국악이야말로 가장 전통적이면서 가장 ‘힙hip’한 한국 음악임에는 변화가 없지만,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컨템포러리 음악이 한차례 각광을 받은 이후 결국 그 관심은 전통의 원형으로 향하게 되면서, ‘굿음악’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음악은 그 자체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DAC Artist 추다혜의 신작 <광—경계의 시선>에서 인간과 신(神) 사이에서 살아가는 무당을 조명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굿은 무당이 노래와 춤, 그리고 연극으로 신에게 인간의 행운을 기원하는 종교의례이자 종합예술로 많은 예술 장르의 모태가 되었는데, 한국 전통음악의 무궁한 보물창고가 바로 무속음악이다. 전라도 무당의 노래는 판소리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들의 춤은 살풀이춤으로 승화됐다. 경기곡 ‘창부거리’에서 부르던 노래가 경기민요 <창부타령>이

되고, 굿판에서 무당의 굿거리에 쓰던 음악이 시나위가 되고 거기서 산조 음악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국악인들은 동해안별신굿에서 장단을 찾고, 진도씻김굿에서 계면조의 선율을 찾으며, 황해도굿에서 수십가의 가락을 찾는 여행을 떠나고, 무속음악으로 자신의 음악 여정을 풍성하게 하기도 한다.

추다혜는 함경도 망목굿의 대가이자 ‘강신무(降神巫)’인 이찬엽 만신(무당을 높여 일컫는 호칭)과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대가이자 ‘세습무(世襲巫)’인 이용옥 심방(제주도에서 무속적 사제를 통칭하는 말)에게 무가를 배웠다. 두 사람이 무당이 된 계기는 조금 다르다. 강신무는 신의 선택을 받아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 것이고, 세습무는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 대물림이 결정된 무당이다. 제목에서의 ‘광’은 광대(廣), 빛날(光), 미칠(狂), 무덤 속(壙), 바로잡을(匡), 울림을 나타내는 소리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 코리안 펑키 샤머니즘 뮤직

추다혜의 음악은 무가와 블랙 뮤직을 혼합해 ‘코리안 펑키 샤머니즘 뮤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담함이 돋보인다. 추다혜는 이를 위해 무당에게 직접 무가를 배웠고, 악기로 쓸 무령(방울)도 무당에게 부탁해 제작했다. 각 지역 무당의 방울과 종을 결합해 다채로운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영험한 기운으로 느껴졌다.

그가 처음으로 만난 무당이 강신무(降神巫)였다. 신이 몸에 직접 실리면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를 맨발로 올라가 영험함을 보여주는 등 기행을 한다. 때문에 처음 보면 충격적인 요소들이 많다. 무당이 걸어왔던 순탄하지 않았을 인생 여정이 깊게 와 닿았고, 영적인 존재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를 자신의 음악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접신을 한 무당은 신의 말을 대신해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 ‘공수’다. 신이 인간을 향해 말을 거는 형식인데, 추다혜의 음악에서는 듣는 이들에게 즉흥적인 느낌이 나오도록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다. <비나수+> 후반부 ‘오늘은 날이야~’ 부분이 대표적인 예다. 멤버 한 명 한 명이 공수에 맞춰 유기적으로 멜로디와 리프(riff, 짧은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재즈 연주법), 키를 만들어 추다혜의 목소리와 흐름을 연결하는 흥미로운 구조다. <비나수+>와 <에허리 송거야>는 레게 음악이다.

일반적으로 굿을 할 땐 먼저 이력을 읊고 신을 청한 다음, 정화와 치유의 과정을 거쳐 화합하고 명복을 빌며 신나게 노는 흐름을 갖춘다. 추다혜는 굿의 형식에 따른 구성으로 풀어냈다. ‘공수’로 시작해 ‘축원’으로

마무리되는 스토리텔링이 내재되어 있다. <에허리 송거야>는 한바탕 시원하게 노는 음악이고, <사는새>는 행복을 비는 축원의 노래이다.

무가를 알려준 무당은 “너 거기서 노래하지 마라. 신들리면 큰일 난다. 빗자루만 갖고 있어도....”라고 경고했지만, 추다혜는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라는 음반 제목처럼 2021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정말로 굿판을 상징하는 당산나무 아래서 공연을 했고, 이번엔 강신무와 세습무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조금 더 확장된 형식의 굿판 <광—경계의 시선>을 선보인다. 추다혜는 그동안 굿 음악을 바탕으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Psychedelic Shamanic Punk’를 내놓으며 대중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고, 이번 신작도 ‘추다혜차지스’가 함께 한다. 무가(巫歌)가 사이키델릭, 힙합, 레게, 소울, 펑크, 재즈와 어우러지며 현란한 가락을 타게 될 것이다.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추다혜는 무대에서 신명 나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추다혜는 여전히 탄탄한 연기실력과 오래 닦아온 소리로 장르 구분 없이 전방위적으로 활동 중이다. 민요나 굿 음악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의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다. 굿 음악을 대중음악으로 풀어냈다는 화두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추다혜의 시도는 다음 세대 음악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일련의 공연을 통해 남은 그녀의 이미지는 모던한 신여성, 소울 디바, 그리고 무당이다.

광 —

경 계 의

시  
선

|      |   |
|------|---|
| 광대   | 廣 |
| 빛날   | 光 |
| 미칠   | 狂 |
| 무덤 속 | 壙 |
| 바로잡을 | 匡 |
| 울림   | 光 |

곡 목록

1. 오늘날에야
2. 길은 정해져 있다
3. Shiva Shambo
4. 오 신이시여
5. 사이에서
6. 비나수+
7. 별일 없습니다
8. 작두거리
9. 신의 비밀
10. 에허리쑹거야
11. 리츄얼댄스
12. 아는 사람
13. 사는새

## 1. 오늘날에야

오늘날에야 반갑고도 즐겁구나  
피안도 서낭굿 제주도 영등굿  
황해도 재수굿  
굿패키지로 정성 올려  
인간의 명빌이 세간에 복빌이 수명빌이  
없난 자손 무쇠명예다 돌곤 달어  
일백육십 점지할제  
바람복은 불어나들여  
구름복은 뭉게뭉게 피어나들여  
죽제비복은 쏜살같이 달려나들여  
자라복은 엉금엉금 기어나들여  
명복일랑 다 받아가요  
재수대통 다 받아가요  
다 받아가는 건 다 좋은데  
잘하면 잘한다 박수도 좀 치고  
못해도 잘한다 박수 쳐라  
더 세게 쳐라 더 많이 쳐라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아아아아  
덩더덩딩 신이난다  
신이온다 신이난다  
부정이 많다 부정을 씻자  
새도림으로 넘어가자

— 추다혜차지스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  
앨범 수록곡



곡 듣기

## 2. 길은 정해져 있다

그 아이가 아홉살 되던 해  
세상 모든 게 변해버렸네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그 애가 변한지도 모르겠어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몸을 일으켜 나갔더니  
대문 앞에 커다란  
할아버지 내가 장군이다 하시네  
그 뒤로 노란 하늘은  
도망치려 발버둥 쳐봐도 (빙~글~ 빙~ 글~)  
세상은 시끄럽고 머리는 어지럽고  
안 보이는 곳에서 누가 말을 해 (뭐~라 뭐~라)  
그의 목소리가 들려 (그의 목소리가 들려)  
그의 목소리가 들려 (그의 목소리가 들려)  
—저기 저 사람  
—저기 저 나무  
—저 집, 검은 그림자  
—그리고 너 오늘 밤에!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할머니는 약을 지어  
새끼손가락 휘휘 저어

내 입 속에 쑥 넣으며 (나을 거다 나을 거다)  
창문 밖에 사람들은  
다섯손가락 입을 가리고  
귓가에 소근소근 (재는 특별하다고 말했네)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신 받아라~!)  
그 아이가 아홉살 되던 해  
세상 모든 게 변해버렸네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그 애가 변한지도 모르겠어

## 6. 비나수+

\*비나수: 평안도 지방 무가(巫歌) 반주에 쓰이는  
장단. 제석(帝釋)굿에서 무당이 신을  
청해 놓고 빌며 부르는 무가에 쓰인다.

궁아궁아 대천궁아  
이 설법을 내실적에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제일 조선국이라  
산지조정 곤륜산요  
수지조정은 황하수라  
이 나라 제일명당 돌아들어  
금일명당으로 돌아드니  
서울하고도 특별시라  
종로구 연지동 두산아트센터로  
이놀이 정성 디릴적에  
서낭님 맞이로다 디립네다  
하연다년 임인년이웁고  
달에나 월색은 9월달요  
날에나 성수 ~일 날에  
이놀이 정성 디리랴고  
월천강에 날을 고리고  
주역선상이 시를 맥여  
일상생기는 골라내어  
대주에는 천길날요  
기주에는 복덕날요  
자야손의 천의날에  
피안도 서낭굿으로 신맛이를 하고  
제주도 영등굿으로 부정을 씻어  
황해도 재수굿으로 명과복을 빌고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엮어  
굿패키지로다 다릴적에

이놀이 정성을 받으시고  
삼사데나 나라만신의 축원대로  
소원성취 시겨주자  
오늘은 날이야 이정성을 받아들고  
반갑고도 즐겁구나  
우리나라 서낭이요 사신행차  
군웅서낭이요 나라만신에  
외인서낭인데  
이번 정성 디리구 가중에  
소원성취 일러주고  
소원대로 재수문 열려줄제  
부귀공명 열어주구 아리질병  
근심우환걱정 다 시기눌제  
오날 여기 오신분들 재수문  
열어주구 자야자손들 창성 시겨서  
없난 자손 생겨주고 있난  
자손은 수명장수 시겨줄제  
해동만신의 말문 열어 상통천문  
하달지리로 다 도와주고 가누래서

— 추다해차지스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  
앨범 수록곡



곡 듣기

## 12. 아는 사람

아무리 달려도 니가 제자리 걸음 같은 건  
세상이 뒤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야  
니가 왜 아파야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늦은 새벽 거리가 요란할 때  
나는 니가 창가에 서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어두운 골목과 시끄러운 사람들  
그 사이를 오가는 열기가 그림니  
우리가 선택한 건 아무 것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 됐을 뿐  
그저 너무 외로울 땐 같이 노래나 부르자  
아무리 바래도 니가 달라지지 않는 건  
신이 너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야  
니가 왜 울어야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낮선 사람들 널 보고 수군댔 때  
나는 니가 골목을 돌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속 모르는 말들과 쓸데 없는 웅성임  
그 사이를 오가는 말들이 입니  
우리가 선택한 건 아무 것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 됐을 뿐  
그저 너무 외로울 땐 같이 노래나 부르자  
같이 노래나 부르자  
같이 부르자  
다 같이 부르자



## 추다혜 인터뷰

글\_장경진

(공연칼럼니스트)

〈광—경계의 시선〉은 노래가 중심이지만, 일종의 서사가 있는 작품이다.

어떤 고민 끝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연극·뮤지컬·콘서트 같은 방식의 분류가 아닌 조금 다른 퍼포먼스극을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리꾼으로 판소리꾼이 널리 알려져 있다. 민요 소리꾼 혹은 무가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서 나만의 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은 이야기와 노래를 오가는 재담극의 형식에 추다혜라는 퍼포머의 접점을 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1년 〈짓—사자의 언어〉에서는 무용수와 함께 움직임에 관해 살펴봤고, 〈광—경계의 시선〉은 추다혜차지스 멤버들과 음악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새로운 시도들은 늘 경계에 있다. 이 작품도 음악극이나 콘서트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노래로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무엇이 무가에 오래도록 집중하게 했나?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굿과 무가를 들었을 때, 저 음악이 누군가를 달래주고 풀어주는 것이라면 그곳에 영성이 담겨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굿판의 노래와 행위를 보며 믿는다. 그러니까 굿은 망자를 잘 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 안에 큰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것 같다.

이번에는 무가를 차용하는 것을 넘어 무당의 삶을 들여다보게 됐다.

무당은 무섭고 우리랑 다를 것 같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분들이 더 외롭게 고립된 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간다. 이 지점이 나와 맞닿아 있었다. 내가 창작자로서 존재하는 것 역시, 관객들과 만나 이야기를 담아 풀어주고 공연을 통해 일정 부분 치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난 예술가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왜 무당이라는 이유로 쉬쉬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굿판의 퍼포머로서의 무당을 추다혜차지스 음악으로 풀어냈다면, 〈광—경계의 시선〉에서는 굿판이 아닌 그들의 일상과 그 길을 살게 된 이야기를 펼쳐보고 싶었다.

추다혜라는 창작자에게 '위로'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게 느껴진다.

나의 헛헛함이 주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술을 접하며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네?'라는 생각을 한다. 동료 뮤지션 이량의 '의식적으로 잠을 자야겠다'라는 곡이 있다. 그 친구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담담하게 펼쳐지는 자기 얘기에 묵직한 울림이 있다. 내 안에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라는 문장은 거대하지만, 나 역시 그렇게 내 마음의 짐을 풀었을 때 비로소 관객과의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다. 많은 예술에서 내가 위로를 받았듯이, 내 음악과 공연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정화해 주길 바란다.

〈광—경계의 시선〉에 사용되는 13곡은 어떻게 구성했나?

새로 작곡된 곡들도 있는데 민요나 무가에서만 가져오지는 않았다. 우리 소리가 가진 정서가 있다 보니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다. 관객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 평소 시도하지 않았던 발성을 가져오기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극과 잘 어울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구성했다.

〈광—경계의 시선〉을 대표하는 곡이 있나?

공연 중 '아는 사람'이라는 곡을 부르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누가 빌어줄까 싶어서 한 번쯤은 많은 사람 앞에서 꺼내 보고 싶었다고. 누군가가 내 지인이 됐을 때,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지은 것도 그들을 나로부터 멀리 분리하지 않기

위해서다. 음악도 슬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것 역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과 일상이 나타나길 바라서였다.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이 '아는 사람'이다.

〈광—경계의 시선〉에서의 역할이

구성·연출·음악감독·출연까지 다양하다. 모든 전환은 잘 되는 편인가?

잘 안 된다. (웃음) 연출적인 기술이나 관점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생각하는 연출가는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이 아직은 많지 않아 출연자로서 충돌하기도 하고 확신이 없어질 때도 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그래도 고민의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는 중이고, 그 두려움마저도 내 작업의 일부라 여기고 있다. 자기만족이 중요해서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다. 누군가의 박수나 칭찬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 두려움이나 용기 없음에 잠식되면 깨어나지 못할 수 있어서 그런 나를 다독이며 가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수련자의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원가에 끌리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실행하거나 안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더 싫다. 그건 남 탓을 하게 되는 거니까.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나'다. 고집인 것도 같지만, 돌아가더라도 직접 경험해보고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는 게 가장 확실하더라.

생과 사의 경계를 다루는 작업을 하며 삶에 더 집중하게 됐을 것 같다.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무대 위에서요'라고 하면 너무 오그라드는 것 같다. (웃음) 그런데 무대에 서지 않으면 실제로도 몸이 아프더라. 신이 있다면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풀어내는 사명과 그에 걸맞은 재능, 사람들 앞에 서는 즐거움을

내게 주신 게 아닐까 싶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값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작업 안에 자연스럽게 스미고 있다.

무대의 어떤 것이 좋은 걸까?

관객이 현장에서 주는 에너지, 퍼포머로서의 몰입의 순간, 공연이 끝난 후 받는 피드백. 이것들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나도 관객분들도 만족스러운 공연이 되는 것 같다. 시를 좀 싫어한다. 기계화되는 게 슬프달까. (웃음) 거기서 주는 혜택들도 있고 사람들과 있는 게 좀 피곤하다 싶으면서도, 인간과 인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사라진 세상은 너무 각박하지 않을까.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광—경계의 시선〉에서는 신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무당, 무당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나를 잘 들여다보려고 한다.



## 구성 노트

글\_ 이상숙(협력 구성)

노래 속에 숨겨둔 한 예술가의 고백

이 작업의 양식적인 콘셉트는 콘서트다. 작가가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노래 안에 담았다. 대사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야기는 최대한 노래로 전하는 형식이다. 작품 안에 담긴 노래 중 일부는 연출가가 '추다혜차지스'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발표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창작곡이다. 추다혜라는 창작자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새로 만든 곡들이 서도소리나 무가들로 구성된 그림이 연상 되지만, '무당'이라는 소재가 장르적 특성을 탈피해 동시대를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비춰지길 바라는 작자의 의도에 맞춰 쓰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장르의 밴드곡으로 설정했다. 노래 가사를 기본으로 한 대본은 극의 진행을 돕기 위한 몇 개의 설정과 아주 단순한 플롯을 중심으로 써 내려갔다.

약간의 '사실'과 조금의 '진심'으로 일군 하나의 픽션.

익명의 가수 '마틸다'가 만난

'한 남자(무당)'의 이야기

초고에는 연출가 추다혜와 무대 위 보컬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수정고에서는 익명의 가수 '마틸다'라는 존재를 등장시켰다. 자연스러운 공연의 콘셉트와 맞지 않는 '작가'의 개입을 줄이고, 역할을 통해 '모든 것이 가짜'라는 설정 자체에 몰입도를 더하고자 했다. 가짜라는 설정은 스스로를 '가짜 무당'으로 소개하고 자신이 선보이는 무가 역시 반 쪽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쳐 얻게 된 것과는 같을 수 없다)하다는 연출자의 생각에서 착안했다.

리서치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만든 '한 남자(무당)'는 강신무다. 어느 개인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신의 계시를 받은 연령대,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기억, 윤택하지 않은 가정 환경, 신내림의 과정 등)을 하나의 캐릭터에 담았다. 이야기 주인공을 특별히 '한 남자'로 지칭한 이유는 '무당'이라는 말이 가진 초월적인 이미지를 벗겨내고자 함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이유에 특정 성별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

한 아이가 무당이 되는 과정과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

바라던 내일이 있었는데,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는데... 오, 신이시여. 지워버린 소년의 내일을 돌려줘요!

'모든 것이 가짜'라고 고백하는 마틸다는 많은 이들 앞에 한 남자아이가 무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 놓는다. 무대 위 주인공은 익명의 가수 '마틸다'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당으로 살고 있는 '한 남자'다. 마틸다가 그 남자의 삶 속에서 꺼내 놓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안타까운 순간들'이다. 갑작스러운 신의 등장, 사람들의 수군거림, 할머니의 눈물, 눈물 바다인 신내림의 날, 혼자 먹는 아침 밥, 날 선 칼날 위에 오르는 순간까지... 노래로 만들어진 마틸다의 시선을 통해 작가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무당의 이면'들을 충실히 담아 보고자 했다. 그러니 플롯은 자연스럽게 '무당의 일대기'로 구성되었다. 마틸다가 바라보는 무당의 일대기는 영험하거나 신묘한 쪽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해 자신이 바라던 꿈이나 일상을 뒤로하고 남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신과 인간 사이, 비현실적인 경계 위에 존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그를 경계하는 여럿의 시선과 상황들이 등장한다.

진짜 무당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는 어느 가수의 고백

"무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며 찾아 온 추다혜로부터 작품의 방향을 전달 받았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무가'가 아니라 '무당'에 가 닿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가 음악으로서의 '무가'에 대한 관심을 넘어 그것을 부르고 연행하는 '무당'들의 삶까지를 파고드는 모습은 그간 경계와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그의 행보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추다혜는 '무가'를 영성이 깃든 치유의 한 장르이며,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무당'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일궈내는 종합예술가라고 했다. <광—경계의 시선>은 무가를 소재로 새로운 장르를 일군 창작자 추다혜의 행보를 하나로 잇는 첫 번째 작품임과 동시에 그가 사랑한 음악과 예술가에 대한 고백이다.

덧붙여 그가 발표한 추다혜식 무가곡들에 대한 일종의 '후일담'이기도 하다. 무당들의 삶 속에서 무가의 진가를 발견한 추다혜는 앨범에 미처 실지 못했던 후일담들을 하나의 '극'으로 무대에 올린다. 이는 그가 과거와 현재 이후라는 경계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추다혜가 작품 안에 담고자 하는 '무당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업에 대한 서술에 지나진 않는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로 대변되는 '무당'의 이야기이자, 사회 안에서 이쪽과 저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경계와 혐오가 만연하고, 소수와 다수로 많은 것을 구분 짓는 세상 한 켠에 술한 경계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의 노래가 몇 세대에 걸쳐 우리네 삶을 살피고 치유하고 있는 아이러니 속에서 과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한편으로 어느 날 뜻밖에 찾아 온 '신'이라는 존재를 개인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응대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지를 엿본 본인의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한다. 알기 전에는 좀 낯설고 먼 이야기일지라도, 사실 알고 보면 그들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노래로 덤덤하게 전하고자 했다.

추다혜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얘기해 보고 싶다. 내(예술 혹은 예술가)가 이 세상에 함께인 것처럼, 그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그들 또한 우리처럼 울고 웃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시문**  
음악감독·기타리스트

추다해차지스, 김오키 빠킹매드니스 기타리스트

- |      |                                                                                                                                                                                                                                                           |
|------|-----------------------------------------------------------------------------------------------------------------------------------------------------------------------------------------------------------------------------------------------------------|
| 콘서트  | 〈2021 여우락 페스티벌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br>〈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Bonus Track: 추다해차지스〉<br>〈생기탱천 Vol.3. 추다해〉 외 다수                                                                                                                                                            |
| 음악축제 | Fuji Rock Festival, Sierra Nevada World Music Festival,<br>WOMEX(2019) 외 다수                                                                                                                                                                               |
| 앨범   | 2022 왓차 [조인마이테이블 OST] 참여<br>2021 시문 EP [Scent] 발매<br>2021 싱글 림하라 [Maskerade] 발매<br>2020 정규 김사월 [헤븐] 참여<br>2020 싱글 추다해 [몽금포] [싸름] [자진아리] 참여<br>2020 정규 추다해차지스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br>2019 정규 노선택과 소울소스 [Version]<br>2017 정규 노선택과 소울소스 [Back When Tigers Smoked] |
| 수상   | 2021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알앤비&소울 노래 부문<br>추다해차지스 '리츨댄스'                                                                                                                                                                                                       |



**김재호**  
베이스스트

추다해차지스, 까데호, 김오키 빠킹매드니스 베이스스트

- |     |                                                                                                                                  |
|-----|----------------------------------------------------------------------------------------------------------------------------------|
| 콘서트 | 〈넥살×까데호 '당신께' 상상마당 투어〉〈강남오아시스〉<br>〈2021 여우락 페스티벌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br>〈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Bonus Track: 추다해차지스〉<br>〈생기탱천 Vol.3. 추다해〉 외 다수 |
| 앨범  | 2022 넥살×까데호 [당신께]<br>2020 까데호 2집 [Freebody]<br>2020 정규 추다해차지스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br>2019 까데호 1집 [Freesummer]                         |
| 수상  | 2021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알앤비&소울 노래 부문<br>추다해차지스 '리츨댄스'<br>2019 Vans Musicians Wanted 한국 우승                                          |



## 김다빈 드러머

추다혜차지스, 까데호, 김오키 빠킹매드니스, 최백호 밴드 드러머

- |     |                                                                                                                                                                                                         |
|-----|---------------------------------------------------------------------------------------------------------------------------------------------------------------------------------------------------------|
| 콘서트 | <p>〈2022 펜타포트 락페스티벌〉</p> <p>〈넥살×까데호 '당신께' 상상마당 투어〉〈강남 오아시스〉</p> <p>〈2021 여우락 페스티벌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p> <p>〈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Bonus Track: 추다혜차지스〉</p> <p>〈생기탱천 Vol.3. 추다혜〉〈2019 최백호 전국 투어콘서트〉</p> <p>외 다수</p> |
| 앨범  | <p>2022 넥살×까데호 [당신께]</p> <p>2021 최백호 [세상보기]</p> <p>2020 까데호 2집 [freebody]</p> <p>2020 추다혜차지스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p> <p>2019 백예린 [Every letter I sent you]</p> <p>2016 Fling [Every hour]</p>                |
| 수상  | <p>2021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알앤비&amp;소울 노래 부문 추다혜차지스 '리츄얼댄스'</p> <p>2019 Vans Musicians Wanted 한국 우승</p> <p>2014 제1회 yamaha drum off 우승</p> <p>2009 동주대학교 전국청소년 음악경연대회 기악솔로 1위</p>                          |



실론 장미가 있어

A) Part

4/4

$G^b_2$   $G^b_2$  |  $D^b_3$   $G^b_2$  | :||

B) part

$B^b_1$   $A^b_1$  |  $B^b_1$   $A^b_1$  |  $G^b_1$  | :||

$B^b_1$   $A^b_1$  |  $B^b_1$   $A^b_1$  |  $B^b_1$   $A^b_1$  |  $G^b_1$  | :||

C)  $B^b_1$   $G^b_2$  |  $B^b_1$   $G^b_2$  | :||

D)  $G^b_2$  -

C)  $B^b_1$   $G^b_2$  |  $B^b_1$   $G^b_2$  | :||

A)  $G^b_2$  ( )  $D^b_3$  ( ) :||

장식 이삭  
장미, 후타테, 이시  
편지, 후타테 카키스

작사. 이시진.  
작곡. 유영하, 이시진  
편곡. 유영하, 이시진.

8. A A<sup>br</sup> Asus4 A

9. E<sup>#</sup> B<sup>7</sup> B<sup>7</sup> D-6

10. A A<sup>br</sup> Asus4

11. B D B D

12. B D D A/C<sup>#</sup> ~~B<sup>7</sup>~~ A D A/C<sup>#</sup> C

13. A A/C B- G-/B<sup>b</sup> A A/C B- G-/B<sup>b</sup>

14. A A/C B- G-/B<sup>b</sup> A A/C B- G-/B<sup>b</sup>  $\text{+}$

15. Asus4 Dsus4 Asus4 Dsus4

16. Asus4 Dsus4 Asus4 Dsus4

17. D-6 A A<sup>br</sup> Asus4

18. D-6 A D-6 A

19. D-6 A D-6 A/C<sup>#</sup>

20. A A/C B- G-/B<sup>b</sup> A A/C B- G-/B<sup>b</sup>

[illegible]

Intro

2! 신사발.

사발, 이삭, 새끼, 휘파람, 이삭, 휘파람, 두리레휘파람.

2x only  
E<sub>07</sub> G<sub>07</sub> A<sub>07</sub> C<sub>07</sub>) E :||

|| E B | D | A A- | E |

| E B | D | A A- | E :||

<sup>12</sup>/<sub>8</sub> | A C | E | A C | E |

| A C | E | A C | E |

| A C | E | A C | 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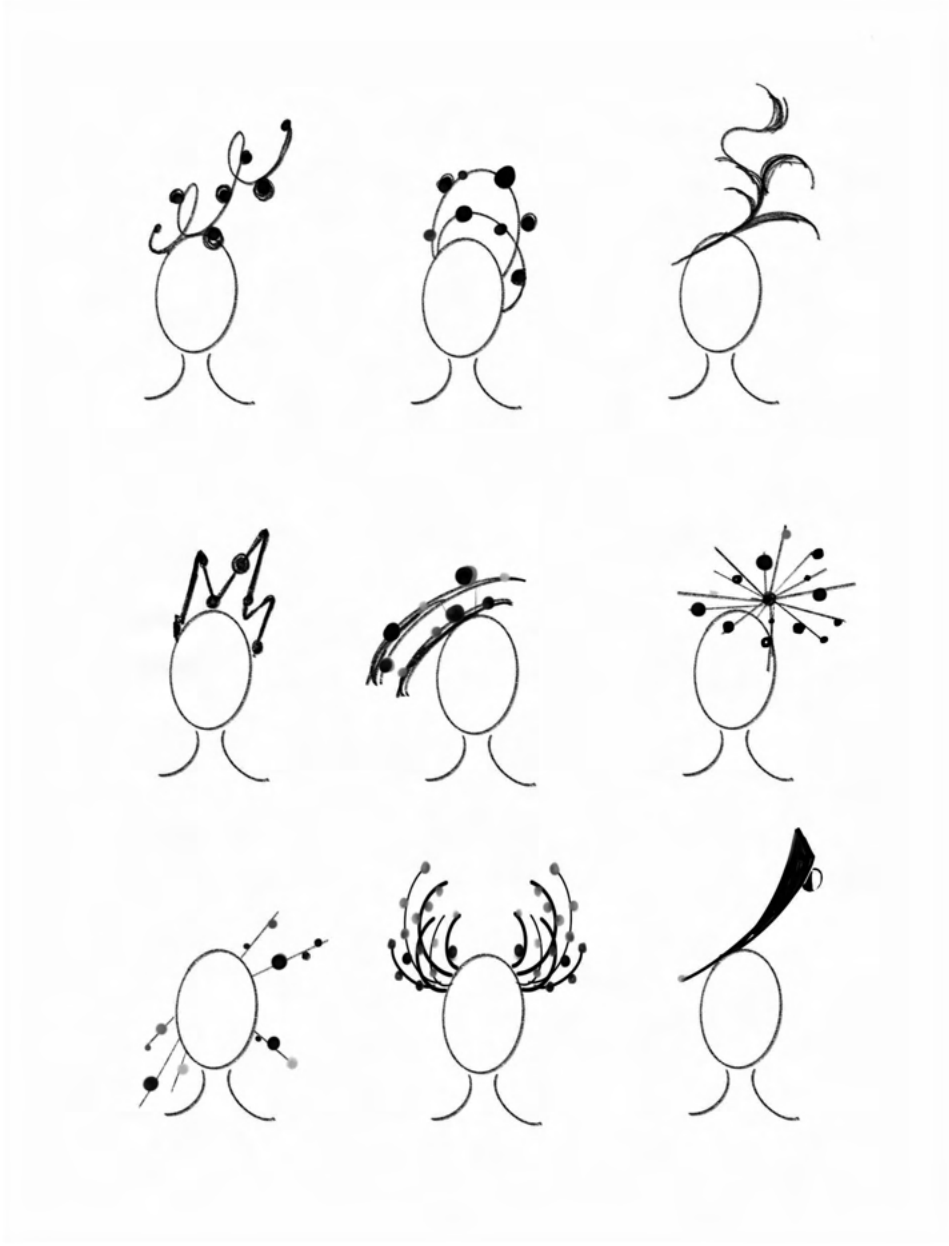
A C | E | A C | E ||

<sup>4</sup>/<sub>4</sub> | E B | D | A A- | E |

E B | D | A A- | E ||

<sup>12</sup>/<sub>8</sub> | A C | E | A C | E |







DAC Artist 추다혜  
광—경계의 시선

2022.9.29~10.12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출연  
추다혜(소리) 이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

구성, 연출, 음악감독  
추다혜

협력 구성  
이상숙

협력 음악감독  
이시문

전자음악  
lackjoe

조연출/무대감독  
이지혜

무대디자인  
신승철

조명디자인  
신동선

조명오퍼레이터  
류한나

조명크루  
류한나 이상혁 이한별 정우원 정주연  
정찬영 정하영 최인수 홍유진

음향디자인  
장태순

음향오퍼레이터  
김승왕

음향크루  
김승왕 이서진 임동엽

의상·소품디자인  
최수지

분장디자인  
김초이

무대제작  
대표  
기술감독  
제작팀

애픽(A.PIC)  
전종혁  
최세현(MUYU)  
이현정 박수종  
전진우 이계수  
채근주 이주은

그래픽디자인  
박연주 전하은

사진기록  
정희승(포스터, 프로필)  
서울사진관(연습, 공연)

영상기록  
필루미에르(연습)  
헤즈 스튜디오(공연)

인쇄  
으뜸프로세스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고마운 분  
제주도칠머리당영등굿  
이용욱 심방  
함경도망둑굿  
이찬엽 만신

두산아트센터

예술감독  
강석란

기획  
박찬중 정다운

어시스턴트 매니저  
이지혜

프로듀서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홍보마케팅 매니저  
강소라 강소정

티켓 매니저  
이한별 최시윤

기술감독  
김관수

조명감독  
황동철 왕은지

음향감독  
신승욱 류호성

무대감독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매니저  
권지은 방효주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최희승 장혜정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박소연



## 추다혜차지스 CHUDAHYE CHAGIS

‘추다혜차지스’는 서도소리꾼 추다혜를 중심으로 기타리스트 이시문, 베이스리스트 김재호, 드러머 김다빈으로 이루어진 사이키델릭 샤머닉 힙크 밴드다.

사이키델릭 샤머닉 힙크는 밴드가 직접 만들어낸 장르로 평안도, 황해도, 제주도 곳에서 쓰이는 무가에 힙크 사운드와 힙합 요소를 가미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색을 보여준다. ‘몫’을 뜻하는 ‘차지’는 이 음악이 오롯이 이를 만든 추다혜차지스와 듣는 이들의 몫으로 모두 가져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2021년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음악이 탄생’이라는 평을 받으며 최우수 알앤비&소울 노래 부문상을 수상했다.

📍 [https://www.instagram.com/chudahye\\_chagis](https://www.instagram.com/chudahye_chagis)

📺 <https://www.youtube.com/chudahye>

섭외/문의 [sosuminjok.company@gmail.com](mailto:sosuminjok.company@gmail.com)

다음 공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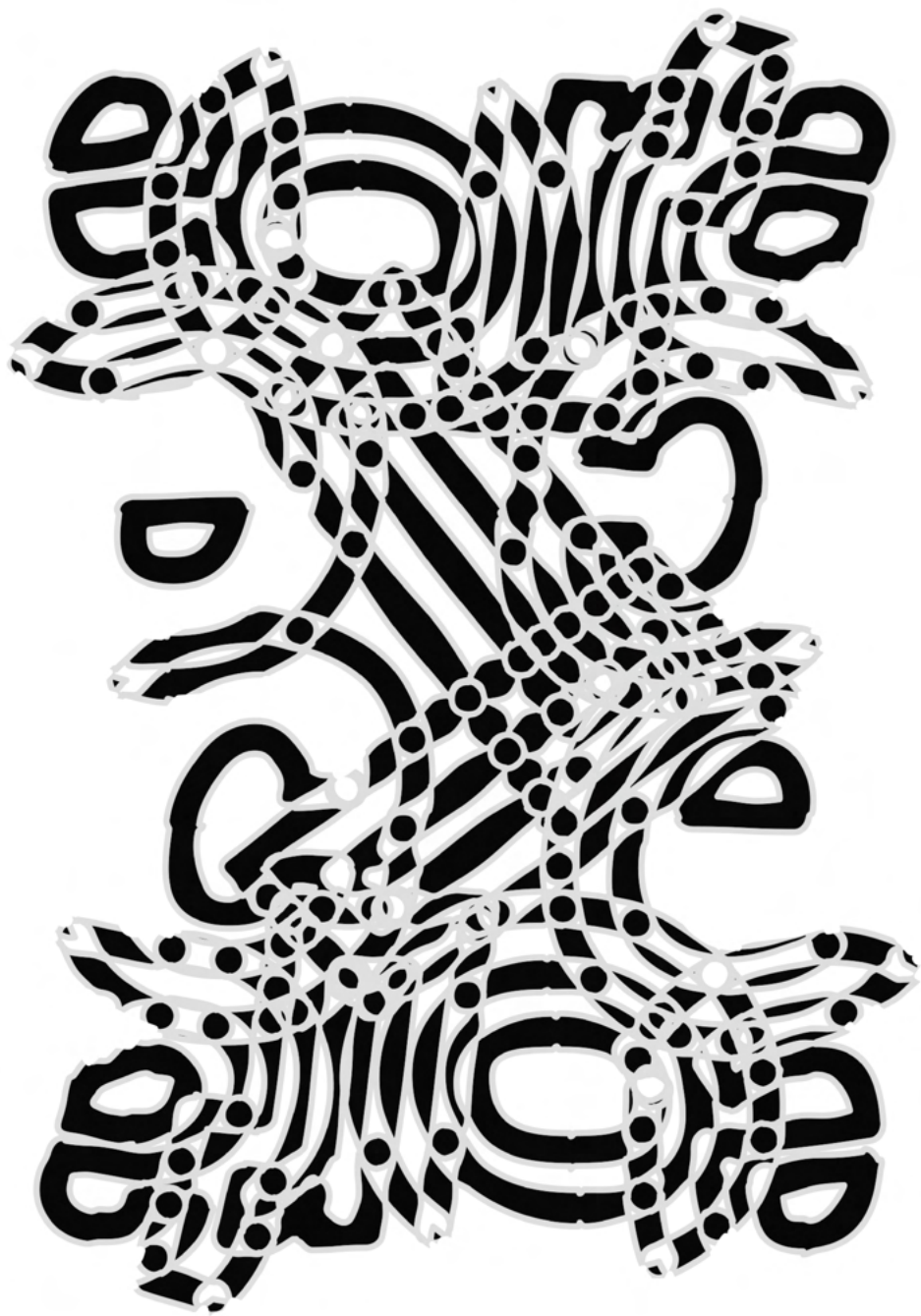
추다혜차지스 콘서트

2022.12.9~12.10 금 8시, 토 5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광-경계의 시선〉 티켓 소지시 30%할인(본인에 한함)

업체eobchae



2022.9.21.-10.19.

eoracle

# 클 래 스

DAC Artist 진주



2022.  
10.25 - 11.12

두산아트센터  
Space111

화수목금 8시  
토일 3시 (월 공연없음)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고 지원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artcenter.com](http://doosanartcenter.com)